

# 이재상 박사

##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담 당 이재상 박사

■ ■ 강의일정 2015년 7/16(목) ~ 7/22(수), 오후, 총 6 회, 월~토  
오후 1:40 ~ 12:10

■ ■ 교 재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저자, 제공)

■ ■ 수강특전 이재상 박사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실강 수강생에 한하여  
진도별 형법 사례특강(7/16, 저녁) 50%할인혜택 제공

■ ■ 강의특징 1. 교재소개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본서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OX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된 교재입니다. 총 200page가 조금 넘는 분량으로 단시간 안에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모두 기출지문으로만 구성된 OX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1~4회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고, 사법시험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된 지문들을 가능하면 변형 없이 출제된 형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문에는 빠짐없이 해설을 일일이 달아 놓아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출판례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변호사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법이론으로 구성된 기출지문들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론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최고치로 높였습니다.

(3) 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편집된 효율성 높은 교재입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는 무려 12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 2. 중점적 강의진행사항

- ① 단순히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대비 방법은 더 이상 좋은 수험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선택형 문제 고득점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② 안타깝게도 시간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모든 지문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수험적합성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 ③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형 이론문제를 대비하여 형법이론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볼 것입니다.

## 3. 강의진도

형법총론부터 첫 회 강의를 진행하여 교재의 목차 순으로 **매회 30~40 page 분량**의 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상 박사

## 형법 진도별 사례 특강

■ 담당 이재상 박사

■ 강의일정 2015년 7/16(목) ~ 7/23(목), 저녁, 총 7 회, 월~토  
저녁 6:40 ~ 10:10

■ 교재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2015년 판, 저자)

■ 수강특전 이재상 박사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특강(7/16,오후) 실강 수강생에 한하여  
본 특강(진도별 형법 사례특강) 50%할인혜택 제공

■ 강의특징 \*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 사례문제를 대비하는 강의입니다.

- ① 강의교재로 채택된 '진도별 형법사례'는 지난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100%의 적중률 자랑하는 수험서입니다. 이 책 한권으로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에 대한 100% 대비가 가능합니다.
- ②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함으로써 형법이론체계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세우고, 이를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연습함으로써, 완벽한 답안작성을 가능케 하여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한 틀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알찬 강의가 될 것입니다.
- ③ 답안지 작성 방법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적합한 답안작성은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올바른 답안작성방법이 체화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④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쟁점은 반드시 선택형문제로 또 나옵니다.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에서 뿐만 아니라 선택형에서도 중복 출제됩니다. 결국 판례의 Leading Case의 학습은 사례형, 선택형을 동시에 대비하는 효율적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 ⑤ 다만 교재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객관식 형법사례는 시간관계상 이번 기회에는 함께 풀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의진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들 중 매일 Case 6~8개 내외

적중예시 2015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4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진도별 형법사례'와 적중 문제 비교

### 〈제 1 문〉

- ① 甲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A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는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수표를 잘못 세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였다. 甲은 그 현장에서 A가 준 수표를 세어보고 1,000만 원이 더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 ②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4억 원으로 B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에서 바로 乙 명의로 경료하였다. 그런데 乙은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X건물이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X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 ③ 그로부터 한 달 후 乙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여 X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乙과 C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은 乙에게 X건물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에 乙은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 전액을 받고 임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한편, 배우자 없는 甲은 乙의 처 丁이 乙과의 성격 차이로 잠시 별거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丁과 성관계를 맺었다. 乙은 丁과 甲간의 성관계 사실을 의심하고 丁에게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丁은 甲과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로부터 한 달 뒤 丁에 대한 이혼소송을 청구한 후 甲만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1.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60점)

#### ①번 설문과 동일 쟁점 - 거스름돈 사기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6과 동일 쟁점】

대학생인 甲의 아들 乙은 여자 친구와 헤어져 귀가를 하다가 담배를 사서 피우려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카운터를 보는 아르바이트생 D가 착오로 과분의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받았다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 乙이 과분의 거스름돈을 교부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의 죄책을 검토하시오. (15점)

#### ②번 설문과 동일 쟁점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31과 동일 쟁점】

보석상 丁은 강남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甲에게 간청을 하여 甲과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丁은 부동산명의인 A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매수한 다음, 자기에게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甲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팔아서 아르헨티

나로 이민 갈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甲은 얼마 후 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는 C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특별법위반은 논외임.(10점)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1) -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2개의 횡령죄의 죄수관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32와 동일 쟁점】

B 주식회사 회계담당이사 丁은 과장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하직원 丙을 술집으로 불러내어 某處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거래에는 나서지 못하니 丙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M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M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이를 명의수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간 과장승진에 번번이 탈락하여 온 丙은 향후 과장승진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는 직접 실거래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소유자 M과 이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맺고 丁의 돈으로 매금을 지급한 후 丙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연이은 증권투자의 실패로 악성채무에 시달리던 丙은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려고 D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아직 D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E가 이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하자 丙은 다시 이를 E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논외임.(25점)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2) - 부동산 이중매매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31과 동일 쟁점】

보석상 丁은 강남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甲에게 간청을 하여 甲과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丁은 부동산명의인 A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매수한 다음, 자기에게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甲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팔아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갈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甲은 얼마 후 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는 C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특별법위반은 논외임.(10점)

〈제 2 문〉

甲과 乙은 후배인 V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①1) 2008. 3. 5. 甲과 乙은 함께 V의 자취방에서 V를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가 사망하자 乙은 당황하여 도주하였는데, 甲은 V의 자취방을 뒤져 V명의의 A은행 통장과 V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훔친 후 도주하였다. ②2) 다음 날인 3. 6. 12:00경 甲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같은 날 15:00경 A은행에 가서 V명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V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같은 해 3. 8. 甲과 甲의 친구인 丙은 乙에게 찾아가 A은행에서 찾은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乙 혼자 경찰에 자수하여 乙이 단독으로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면 乙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乙이 출소하더라도 끝까지 뒤를 봐주겠다고 회유하였다.

고민하던 乙은 2008. 3. 11. 15:00경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자신이 혼자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9. 乙만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乙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고, 검찰이 채수사에 착수하여 2008. 6. 16.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은 甲의 소지품을 압수하였는데, 그 중에 V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추궁하자 ③3) 甲은 乙과 함께 2008. 2. 중순 경 V를 폭행하여 V 명의의 B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甲은 2008. 7. 4.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9.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甲이 체포된 후 숨어 지내다가 2013. 4. 29. 체포되었고, 같은 해 5. 15. 검사는 丙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1. 1)의 범죄사실에 대해 甲의 변호인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상해의 죄책을 인정하려 한다. 甲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2. 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 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죄책을 폭행의 정도를 구별하여 논하시오. (20점)

#### ①번 설문과 동일 쟁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4와 동일 쟁점】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乙과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甲과 乙은 甲의 집 근처에서 만난 다음, 甲은 20여 미터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숨어서 망을 보고 乙은 빈 집인 甲의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甲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B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B는 乙이 지른 불에서 나온 유독성 연기에 질식사하여 사망하였다. →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 ②번 설문과 동일 쟁점(1) - 공문서위조죄와 사자명의를 사문서위조죄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전범위 사례 2와 동일 쟁점】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甲은 다른 손님 乙이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다. 그 지갑에는 乙의 동생인 사망한 丙의 자동차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 부분에 자신의 사진을 겹쳐 놓고 복사하여 甲의 사진이 들어간 운전면허증 사본을 만든 후, 인근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그곳에 배치된 이동전화이용계약서 용지에 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근처 인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겨온 丙 명의의 도장을 찍어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만든 운전면허증 사본과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자신이 마치 丙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리점에 함께 제출하고 고가의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였다. →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35점)

#### ②번 설문과 동일 쟁점(2) - 사자명의를 사문서위조죄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6과 동일 쟁점】

사기꾼인 丙은 자신의 집과 인접한 대지 50평을 매수하려고 관청에 가서 그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F는 10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있지만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丙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丙은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얻어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F, 매수인 란에 丙이라고 F의 생전일자로 기재하여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丙이 死者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에 대한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1) - 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5와 동일 쟁점】

(1) 甲은 밤 11:00경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A(만 21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 A가 자신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자 甲도 함께 탄 다음 A의 머리채를 잡고 반향

을 억압한 후 12층 복도로 끌고 나와 간음하였다. 甲은 간음행위 도중 A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반지가 탐이 나서 강제로 빼앗은 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甲은 간음행위가 끝난 후에 달아나려고 하다가 범죄현장 바닥에 A의 핸드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것을 집어 들었다. A의 손가방에는 역시 甲의 짐작대로 다액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다. 甲은 A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손가방은 땅바닥에 버린 후 도주하였다. 이때 甲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이 없었던 A가 甲이 자신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취거해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당연하였다. (2) 甲이 A의 신용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신용카드 뒷면에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甲은 범죄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B의 예금구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하고, 100만원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신용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25점)

☞ 강도나 절도는 모두 탈취죄로서 형법적 법리는 동일함.

###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2) - 편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7과 동일 쟁점】

홍대 앞 某 클럽에서 이른바 ‘죽돌이’로 통하는 乙은 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사귀게 된 철모르는 부잣집 막내 딸 B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작심하였다. 甲은 사실은 B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B와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다음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K 은행 압구정동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20점)

☞ 사기나 공갈은 모두 편취죄로서 형법적 법리는 동일함.